

이정명도를보고도라와출풍의상을스모하더니이제손선성이비록명도에지나지못  
 하나실로주광명의흠양함이근절하니내만일성판에처흔죽엇지영형치아나리오부  
 중에도라와부척퇴오니연왕이문왕의지산등에가우엇을엇음잇는노인성이디  
 왕세강속말하야근지향에현송지풍을보지못하고다만태산하손선성을보오니최  
 최고취하든주무속의풍도를결하니거의당세일인이나다만루항에루공지단이태심  
 하디이다연왕이위연탄왈조고로산림암혈에이곳흔재만하니는다오비의척물이  
 라내이제조정에천거하야쓰고저하니엇더하리오인성이침음왕선성이림별에하  
 는말이잇디이다하고등흔흠을고하니연왕이대희왈내평성에한미흔집과결흔하야  
 조식의복력을앗기고저하더니이엇지소원이아나리오인성이다시고왈손선성의지  
 죄고상하야만일오가에서천거할줄안죽즐겨아니할가하니이다연왕이덤두하더니  
 츠시황태지척봉후병혁을인연하야조정이다스흠애입혹지례를형치못하엿더니  
 지바야흐로태혹을중슈하시고연왕으로래즈래부를비하야길일을덕하야입혹하실  
 식련하군현에쇼셔하야도혹이고명흔선비를부르실시연왕이래산하손선성을천거  
 하니던지옥벽포를들조초아례로부르신대선성이할일업서출산입조하니인성이중  
 로에영후흔대선성이반겨집슈왈로워로리의깃분일이업스나오직너를맛날가하야  
 희이불미하더니이곳에상봉하니더욱반갑고다정하도내이제황상씩퇴음고너를  
 천거코저하노니네뜻이엇다하노인성이악연왕선성이이엇지신말씀이니잇고쇼저

유루몽권지소 대오십구회

조진지심이잇슬진대부형의덕으로오허려너너할지라이제선성을우러는바는도덕  
 문장을스모흠이러니금일이말씀은평일브라움이아나리오다선성이기용샤례하  
 더라던지손선성을근정면에인견하실시빈주지례로되접하샤공경대신이좌우에되  
 셧스니선성이멀니연왕을보고심중에의아왈년쇼대신이지례심원하고진퇴득중하  
 니이엇던귀인이고하더니및태혹에도라와입혹지례를훈가지주선하고더욱탄복하  
 야바야흐로연왕임을알고한훤지례를베풀고저하나길이업더니대례를필흔후스관  
 으로도라오니연왕이인하야나르러스대지례로칭샤하거늘선성이하당영좌후연왕  
 왈선성은물외고상하시고만성은환로에골물하야신식이상조하고성문이불급하디  
 니련은을남어용광을접하오니엇지영형치아나리오손선성왕초야지종이로무지  
 로은총을인연하야수일강연에덕용을첨망하오니그욕히다형하오나몬져문하에진  
 후치못하고이곳치왕골하셔니감샤하도소이다연왕왕불민흔조식이문하의무르치  
 심을받자와더욱향양지심이근절흔지라복원선성은중시를훈도하야주소셔선성이  
 쇼왈로워비록일일지장이잇스나현윤의혹문은로부의우희라엇지무르침을말습하  
 리오인하야서로한담할척기미상합하야무연부도하더니연왕왕선성이쇼괴잇셔돈  
 으외성흔코더하디하셔니만일진진지의를허하신즉루추흔문호에만장광식이될가  
 하느이다선성이쇼왈복이과연일키녀식이잇스니명광의부덕은붓그림지아나하나  
 장강의외모는부족하니귀문의즈부지임을승당치못하나상공이임의말습하셔고령

유루몽권지소 대오십구회



량은로부의홍양호는바라만일허홍호신죽엇지영형치아니리잇고연왕이대희호야  
 도라와량천척고호니태여또호선성을심방호대선성이연부에희사호고그가풍법절  
 을깃거호더라선성이입후지례를임의못침애오래성시에두류코져아니호야고귀호  
 대상이비록만류호시나엇지드르리오런지에본현으로들마다름육을제급호라호  
 시고황금천일을신행호시다선성이도라와립일호야연부에보내니연왕이슈유호고  
 으즈를거는리고대산하에니르려성례호시위의초초호과괴구의쇼연함이진짓한  
 스의혼인이라선성은연왕의귀이불교호를탄복호고연왕은선성의안빈락도호를공  
 경호더라삼일을못천후천영호야도라을시선성이연왕씨청왕상공의춘취호지아니  
 호시고영랑이곳호여리축함이어렵지아니호리니수년을로부를조차한가히호문을  
 힘씀이도호를가호는이다연왕이허락호니라연왕이즈부를거는려부중에도라와너의  
 빈격을모호고신부지례를행호라호시초지련랑이으즈의손을잡고문져문왕신부의  
 범절이엇더호다노인성이부답호더니연왕이드러오거늘련랑이압하나아가문왕상  
 공이즈부를문져보시니엇더호더니잇가연왕이쇼왕내랑의소견을문져듯고져호노  
 나외모의절등호과중심의현숙호거시어는게나호노련랑이깃버아니호고물너서왕  
 상공의말슴을알지라제간의담디멸명이상셔롭지아닐가호는이다호더니신부교지  
 드러오에서비교호문을열고보다가대경호야드러와란성씨만히고왕손쇼저의얼  
 골이손야차와흠스호오니아마도동성지천인가호는이다란성이척왕천비감히주인

澹臺滅明

松竹軒

을의론호는노언미팔에신취입문승당호니좌상이허연실석호야연석이무광호나다  
 만련랑의괴식을숨히니태연화락호고윤부인과란성은정신을쏘아쇼저의동용주선  
 을보더라비례를못고신부처소를별원홍죽헌에당호니라시야에연왕이열납헌에니  
 르러문왕부인은신부를봄애엇더호다노부인왕제갈부인은다지다예호야너즈의본  
 식이아니라이제신부는동정이례에맞고괴상이덕후호니소위너중군지라만일인성  
 이아닌죽그씩호를재업슬가호는이다또란성드려무른대란성왕첩은비록말슴치못호  
 나신부를디함애첩의얼골이요염함이붓그림스오니아마도락호난급호배잇슬가호  
 나이다련랑이쇼왕부인과란성은첩을위로코져호시나임의내즈식이되엿스니우렐  
 장단을의론호야무엇호리잇고호다라손소제부중에드러와삼일후비단옷을남지아  
 니호고검소흔의상으로동방이미명호야임의별원문에니르려존고의괴침호심을기  
 드려쇄소응디를슈족호치호며쇼저지공을천히맛보아일시도리축호지아니호니련  
 랑이그중편함을말호나중시여일호야면강함이업거늘연왕의사랑함은고사호고부  
 중상해탄복호야감히비례지스와의만호빛으로손쇼저에게디호지못호다라수월후  
 연왕이인성을손선성에게보내여슈호게호니문호이더욱일취호거늘선성이도동  
 을전호고별호를주어왕신암이라호니산동호재놓흔바람을듯고날로나아와신암선  
 성을차자속슈지례를드리는재구름호다라초시연왕이삼즈를초례로성취호고오직  
 괴성과석성이미취호였는지라연왕이괴성의괴경함을편이호야제즈에저나더니엇

慎菴



지흔지하회를보라

데륙십회

설종미봄을전송하야옥랑을모드고  
과상제 취음을드청루를부슈다

雪中梅餞春會玉娘  
霍尙書乘醉打青樓

각설연왕의오조중괴성이더욱풍취아름다와보는재남중일식이라칭찬하니태야태  
메이지중지하고란성이더욱사랑함이장성에게지아니하더니일일은란성이창두  
를명하야조그릇은설화마를취봉루하에미고빛기더니괴성이어디로조차뛰여드러  
와돌타기를청하거늘란성이쇼왈네만일타고져하거든나와쌍륙을치이괴면티오리  
라괴성이대희하야쌍륙판을बाट드러압히노으며치기를청흔대란성이웃고티국하야  
일국을이괴니괴성이다시사으를집으며왈삼판량을명하스이다란성이허락하고  
또일국을지니괴성이대희하야다시버려왈이판을모친이지신죽으조의소청이거의  
일우려니와미오위티하도다하며사으를정신드려더지며국세를자제보니괴성이홀  
일업시또지게되엿는지라괴성이사으를뜻코왈모친은쌍륙을그만두시고쇼조의물  
타기를허하쇼서란성이쇼왈임의내기를명하얏스니승부를보아티우리라괴성왈이  
판을못치지못할곡절이두가지라쇼지모친을이관즉도리아니오모친이쇼조를지우  
신즉괴상이무료할지라그저물만타여주소서란성이그물을괴특이녀여손야차드려

든든이붓들나하고괴성을티와게하에두세박회를도라든이니괴성이대락하거늘란  
성이웃고문왈으지이물을드고어티로든이고저하느뇨괴성이쇼이티왈삼월춘풍에  
장타의버들이푸르고조막의뜻이란만홀티오사홍포로황금편을놓히들어락화를끓  
으며양류스를노래하야주루처가에금조를주으며은티금필에성던조씩조회하고어  
비법주에취흥을써여도라고저하느이다란성이더욱괴특이녀이다괴성의나히  
십삼세됨에레부상셔유공의설과성흔하니성의빅유괴의후에라쇼저의유한정정흥  
과경묘단아함이초옥군주와우렬이업더라초시던해태평하고조당이무스흔지라연  
왕이다시귀향홀뜻이있더니던지하교왈짐이비록년쇼하나수빅년종사지락이황태  
즈에게달넷스니그보도하느노리를맛당히극진이홀지라금일붓허강연을시작하라  
츠시연왕이래조래부로잇고상셔형데또흔강관으로입시하야부조삼인이축일입결  
흥애밤든후파귀하더라일일은연왕삼부제입결후괴성이태야씩고왈춘괴화창하고  
풍일이청량하니쇼손이수기문직으로랑춘티에올나화류구경하고올가하느이다래  
애허락하니괴성이대희하야일필청려와일기가동과량기문직을다리고탕춘티를차  
자갈서홍진은한풍에곤곤하고풍류는처처에랑자흔티장안쇼년이빅마금편으로쌍  
쌍이성군하야청루를차조며주가못는지라괴성이귀를모라흔곳을브라봄애특양  
이좌우에버렸는티슈곡분장에화목이은영하고단루처각이동서에소삿는티분벽사  
창에주렴을반기하엿거늘괴성이문왈이곳은엇더흔곳이뇨문직왈이느황성중청티



蕩春園 五陵

니 창기 잇는디 니이다 괴성왈내 청루 일흥은 고셔에 보앗스나 그 경치는 못보앗스니 흥  
 번보고저호노라 랑기이 간왈이 곳은 군즈의 출입할배아니니 바로 탕춘티로 가스이다  
 괴성이 미쇼호고다시라 귀를 채쳐 탕춘티에 니르니 원리 탕춘원은 장안 중대 일큰 동산  
 이라 원중에 전허 화류를 심어 춘하지고에 오릉쇼년과 괴환즈데기 악을 다리고 딜탕오  
 유호는 곳이라 괴성이라 귀를 완완이 물며 찬찬이 숨혀보니 처처의 화류 빛과 곳곳의 스  
 죽소리 일년 춘광이 이곳에 잇더라 흥 곳을 브라보니 주륜 취개는 화하에 락역호고은 안  
 준충은 류간에 왕리호야 오사록포와 취슈홍장이 춘풍을 회롱호며 취흥을 즈랑호거늘  
 괴성이 랑기드려 문왈이 는다엇더호사 림인고 랑기왈 장안쇼년과 청루제기 화류호라  
 든님이니 날마다 더러호니이다 괴성이라 귀를 멈추고 랑기 구경호더니 흥연수플스  
 이로 북은 괴발이 풍편에 는 붓치거늘 괴성이 쇼왈고시에 석양점출주괴풍이라호니이  
 반드시술파는 집이로다 우리 잠간 일비식마시리라 랑기왈 청루를 차즈며 주가를 든님  
 은 랑즈의 일이라 상공이 알으신즉우리 쓰지 죄책을 당호리이다 괴성왈고즈적션은 장  
 안시상주가에 취면호였스니 내이제일비마심이 무슴 관게잇스리오라 귀를 채쳐바로  
 주가로 향호야 각각 두어 잔식마신후미 취호야 도라올식다시 청루를 지내애 좌우루각  
 에 석양이 빛최여 금벽이 령롱호고 문전 양류하에 향거보매 변화열호호거늘 괴성이 좌  
 우고면호야 책적을 들어 찬찬이 흥호더니 흥연동편루상에 거문고 소리 령령이 들니는  
 지라 괴성이 일즉모친씨비 화음들의 총명이 잇더니 취흥을 띄여 호탕호스음을 덩치못

雪中梅 冰冰

霍都樹 霍尙書 子虛

호야 랑기드려 왈내이제술이 취호야 집에 가지 못호지라 잠간루에 올라 거문고를 듯고  
 술을 써여 가라 랑기이대경왈즈리 청루에 무뢰호탕호재만호니 만일 흥소호셔성이  
 그릇드러 간즉욕을 당호는니드러가지 말으쇼셔괴성이 쇼왈대장비세상을 열력호야  
 영욕을 비상호후지견이 좁지아니호는니공등은도라가라 내잠간구경호고가라 설  
 파에라 귀에 는려 금성을 차자드러가더라 차설황성청루에기네수빅명이니그중량기  
 기네잇스니 일기의명은 설중미라가무즈식이출중호뿐아니라로류장화의전문영기  
 과후문송기호는풍류심정으로번화중중에등양호고일기의명은빙빙이니또호안석  
 과지죄절디호나련성이청개호고슈단이슈졸호고로일흥이소사나지못호야문전이  
 링락호더라 설중미과도위아오과상셔를천압호야청루일방에쳐호니과상셔의즈는  
 즈허라가산이루거만이오어려서붓허풍류방탕호야장안쇼년의패뒤되야설중미에  
 게침혹호니년이삼십일제라츠일과상제탕춘원에상춘호라왔다가미랑의집에풍류  
 와음식을시키고야연을괴약호니미랑이주찬을비설호고상셔를기드리다가우연탄  
 금호더니흥연일위쇼년이록포당건으로주흥을띄여드러오는대영발호괴상은일플  
 명월이희상에도다오고번화호용모는삼춘명혜이슬을먹음은듯년괴비록어리나흥  
 지거동이극호방호지라미랑이놀나거문고를밀치고니러마즈니괴성이웃고안즈  
 며왈나호화류호고가는사름이라우연이금성을듯고드러왔스니랑은일흥이무엇이  
 뇨일변말호며일변미랑의용모를봄에얼굴이철석호고눈이가늘며단순호치오진슈



아미라력력인성으로느직히티왈첩의천명은설중미라하는이다괴성이변화흔우음  
과호방흔말로왈나는방탕흔사람이니칭호는양성이라량이초면적을위하야고산류  
슈의묘흔슈단을앗기지아닐쇼나미량이츠평파를흔녀양성을보며거문고를다리며  
슈로줄을끌나다시일곡을드니슈법이괴이하고음퇴정묘하거늘괴성이대희칭찬하  
더니홀연누집창뒤일봉쇼찰을드림에미량이퍼보고미쇼하며척상우에눅코박그로  
나가창두를슈작하야보내거늘만히그편지를펴보니왈

今夜 入闕 黃昏佳期 再明日餓春宴 期約  
금야에맛츨입결할일이잇서황혼가기를저버리니저명일전춘연으로괴약하노라

미량이도로드러와차환으로쥬찬을나아왈상공이쇼년풍류로방화슈류하샤청루를  
뵈아령금코저하시니반드시쥬량이넓으실지라천첩의일비박쥬를스양치말으쇼서  
싱이웃고인하야광쥬교착하야일락셔산에니름애성이놀나몸을니러왈내부형잇는  
사람으로잠간화류하랴왔다가임의황혼이되얏스니밤비도라가노니후일을괴약하  
노라미량이츠평파를흔녀은근송정하고초연이티답이업더라성이임의문박게나옴애  
량이문외에서방황하다가반겨왈일모하얏거늘엇지도라감을느즈시니잇고하고  
싱을다리고망망이올시량이쇼왈쇼쥬인을드러보내고방심치못하야문전에서쥬  
저하더니량이쇼년이쥬마를드고와문외에느러드러가고저하기에쇼쥬인의실슈함  
이잇슬가하야그쇼년의소매를잡고손을저으며눈짓함애그중일키쇼년이술이반취  
하야시비코저하니일키쇼년이만류하며중용문왈오신재누구노하기로우리티답기

어려워손을저으며왈그만하면알지니무러무엇하리오흔대그쇼년이우리를우아래  
를홀터보다가미쇼하며셔편청루로가더이다성이쇼이부담하고부중에니름애래애  
문왈엇지이리저무노괴성왈저연구경하다가일모함을니젓는다선속인이척왈만  
일상공이환가하야게시던들반드시엄척을당할지라엇지조심치아니하느뇨괴성이  
쇼이티왈일시츨흥으로방화슈류하야오히려총총초초이왔는다란성이듯고미쇼  
무언하더라아이오연왕부지나옴애래왈로워근일츨괴괴곤하야강호물석이싱각  
나니명일수기문괴과산옹을다리고취성동에가수십일쇼창코저하노라연왕이승명  
하고티당에드러가제량을불너상의왈로천이명일취성동에가샤수십일쇼창코저하  
시니이논비복이조셔지공을맛게못할지라제량중일인이되시고가라란성왈련속인  
은잉티수삭이오선량은근일자로불평하니첩이되시고갈가하느이다연왕이도움을  
말하고래야씩고흔대래애침음왈수십일을엇지못견디리오곳하야제량을다리고가  
고져아니하노라연왕이다시고왈이또흔직척이라쇼지임의란성을가라하얏는다  
래애왈그러흔죽란성은부중에의론할일이혹잇슬가하느니선량을다려가게하랴연  
왕이유유하고또고왈쇄소응티에혹가동이못할배잇슬지라으즈중누구를다려가고  
저하시느니잇가래애쇼왈인성의위인이너모졸하야남즈의변화괴상이부족하니코  
치가쇼창케함이무방할가하노라연왕이슈명하고익일미명에연왕부지또쇼반에드  
러갈척창두와표즈를일일이지휘하고산옹과인성을불너범스를티만치말을경계하



碧雲樓

紫雲樓

고벽은루에니르려숙인드려왈로천의과거음식을랑이그음알아부티지가지일보다  
 더하게하라숙인이승명하고시비이인과일회를거느려야를피셔등정할시연왕부  
 지비후하야성의성지송후연왕과상서형데는입결하고의성은부중으로도라와  
 벽은루를브라보니문을닫치고모친소리나는듯종일심식을민하야주착할곳이업는  
 듯흔지라석반을잘먹지못하고셔당에척상을디하야심란이안젓거늘란성이그뜻을  
 알고셔당에니르러위로왕내즈은루에잇슬때수십쥬버들을심엇더니약흔가지와가  
 는남사귀요스이아름다을지라숙인이홀로구경하야부중의을적하든홍금을풀니로  
 다의성이쇼왕이말슴을듯스오니쇼조의즈모싱각하는심식일분위로되는이다하더  
 라시야에연왕부지결중으로나와일즉취침하니의성이셔당에물너와축을도도고독  
 셔하다가홀연탕춘원갓든일을싱각함에심신이호탕하야척을덥고침을왈내나히십  
 스제라성식풍류를이때에못하고어느때하리오설중리의동인풍정이넛날양쥬미인  
 의투골홀과방불하니내엇지두목지의풍취업스리오하며던전불미하고미랑의거동  
 이눈에숨슴하야불스이지석라번연이몸을니러일기가동을다리고다시미랑의집을  
 찾고져하야전일동행하든랑의드려또또치감을말하니랑의이저져하거늘의성왕공  
 등이가고져아닐진대그만두라내홀로가리라하고가동으로축을들니고표연이나가  
 거늘랑의이홀일업서뒤밧쳐르더라차설미랑이양성을흔번후경경불망하야심  
 중에싱각하되청루에쳐흔지멧히에장안쇼년을모르는재업고공조왕손을못보니업

楊州 杜牧之

스나양성근흔인물은처음본바라우연이맛나홀홀분슈하니제만일다정남조로내뜻  
 을알진대도라가닛지아니하리라하야은근히고되하더니밤이깊고월석이만덩흔디  
 일기쇼년이루포당건으로일기가동과랑기문을다리고드러오거늘보니양성이라  
 설중미반겨랑연이웃고맛거늘성이옥슈를잡아왕탕춘귀로에팅금하든쇼년을싱각  
 할쇼나랑이짐짓슈슴하야성의손을뜨흔잡고더성답왕중심장지어니하일망지리오  
 하니복복흔향과말슴을쓰라사름에게풍기느니라성이여취여몽하야정신이살아질  
 듯되에안즈며랑의과가동은박게기느니라하고화축을도도며새로히미랑의용모를  
 봄애미첩에그득흔풍정이담쇼중에교염명민을범하야죽히남의의간장을화하야홍  
 로덤설이될지라비반을나위여미취함에성이천히거문고두어곡도를드니미랑이노  
 래로화답하야반야를딜탕하다가양성이쇼년이라일중정육이취흥을조차것잡지못  
 하니상상에나아가원앙티를글으고부용군을벗겨초련양티에운위번복하더니미랑  
 이취안이몽롱하고지레무력하야다시니리의상을정돈하며심중에싱각하되내양성  
 을다만일키미남조로알앗더니엇지풍정이이러듯과인함을짐작하앗스리오과상셔  
 근흔자논일키비부랑의이로다하며오히러미진흔음잇서그만허문왕상공이이  
 제도라가시면어느날다시되오리잇고싱왕내흥도하면다시차즈리라미랑왕명일은  
 전춘이라장안쇼년과청루제기탕춘원에모혀봄을전송하느니그리로심방하시면말  
 니용광을다시되을가하느이다성이허락하고도라왔더니익일조조에연왕이래메씩

楚天陽臺



고왕황상이강연제신을모흐샤후원에전출하시고늘고저하시니일즉입결하야야심  
 후나올가하느이다란성이쇼왕강남풍속은전출연이큰노름이라물식이번화하야삼  
 월상스일곳흐느이다연왕부지입결후의성이래때씩고왕쇼손이듯스오니금일탕출원에  
 남만잇스리오연왕부지입결후의성이래때씩고왕쇼손이듯스오니금일탕출원에  
 장안쇼년이모혀전출노름이구경할만하다하오니잠간보고오리이다대때허락왕네  
 부형은결니로전출하라가고너는탕출원으로전출하라가니하느니는맛당히량부량  
 량으로후원에올나또호송출하리로다의성이다시란성에게청왕쇼지금일잠간호샤  
 코저하오니설화마를주소셔란성이웃고허락하니원리란성의총명함으로엇지의성  
 의방탕함을짐작지못하리오마는란성의던성이풍류번화함을도하하야비록조질이  
 나염금치아닐뿐아니라왕왕도흥발양하느때만흔지라즉시창두를불너설화마를셔  
 으러계하에빛기라하고란성부의재로할안장과굴레를가져오라하니손야채즉시가  
 저오니과연황금으로장식하고주취로참여황금굴레와산호책적이휘황흔지라의성  
 이대희하야다시량기문격을다리고설화마에올나장안대로회회차하야미량청루로  
 가니라츠시설중의풍류명기로양성을미혼진중에롱락할애더욱스모하야동동일년  
 이양성에게신택이고반덤싱각이과상서에게업더니츠일과상세또흔편지를하야왕  
 今日皇上 諸臣 後苑 饒春 背約之人 慚愧 瓜  
 金日皇상이제신을모흐샤후원에전출하시기로또비약지인이되니참괴하도다과

子金百兩 今日 再明夜  
 子金百兩을보내니금일노름에쓰고지명야에맞날가하노라

미량이람필에은근이무방하야하인을수어로보내고탕출원에가라장속홀서거울을  
 뒤하야락미장에도화분을잠잔다하야반계장을일우고십미도에라조되를써서신월  
 미를그린후아황은익상에완연하고잉도는홍순이분명하며다시취화철보던은잠간  
 녀츠로붓치고일쌍금보요는반만견상에빛겼스며두어낮은빈을숨사히거두지아니  
 하니장손부인의타마계를모방함이라좌우드려문왕길에탕출다가쇼년이얼마나  
 하노차차환왕아즉평명이못되얏는디은안슈곡이길에마득하니금년전출은가든중데  
 일될가하느이다미량이웃고거울을들어얼굴을보며왕장안쇼년이다아니와도나의  
 다정량만오쇼셔차환이쇼왕랑조의다정량은곳과상셔로예라임의못오심을말하얏  
 스니엇지헛도이기드리시느노미량이거울을더지며입안소리로척왕다정량인지박  
 정량인지분별이무엇인고초연량구에다시웃고왕네문의에나가섯다가일전오섯든  
 양상공이지나시거든널이라차환이나잔지슈유에던도이드러와고왕상공이오시나  
 이다미량이반겨황망이내다르니양성이아니오이에과상제라오륙기문격을다리고  
 술이반취하야드러오며쇼왕금일황상이다만강연제신과노르시니내량을차츰이라  
 아짜파조금을보내엿더니보앗느나미량왕주신거슨감샤하오나입결하신가하엿더  
 니이제장춧탕출원으로가시라하느니잇가과상제웃고문격을더러왕군등은문의에섯  
 다가리장군려서랑왕원외우문지뵈을거시니널이라내잠간미량과말하교저하노라

長孫夫人



문득이 유유하고 나갑애상세미랑의 손을 잡고 다시 불애슈식 단장이 령릉찬란하야 취  
 안애황홀하니 양류세요를 드립디안고 옥안을 다히며 단순을 합고져 현대미랑이 불  
 언불쇼하고 박은 뜻이 섰더니 차환을 불니 왈 일세느저가니 당춘원갈고즈와 교위디령  
 하얏느냐 상세쇼왈 손이 오자 주인이 출입하니 이 무슴도리뇨미랑이 작식왈 상공이 수  
 년천호계집을 엇그제사관사름곳치하시느니 잇가다시 좌우로의 상을 끼고 초록별문  
 빙사혈슈에원앙디를늘넛스며 룩령금루성성단홍협슈에런청도류슈요디를장속하  
 니 칠보명월패는 빛그로들니 헛고비취이 궁전은 속으로 깃히 찬후일도도홍당스도디  
 를일쌍봉두동심결로드리우고 유노잡패와 슈혜달의 슈취령롱하야이로형용치못홀  
 니라장속을 못치고 데경을 디하야 압호로 굽어 보며 뒤호로 도라보아 반향을 홀로 얼으  
 니 룩슈원앙이 그림즈를희롱하고 단산조봉이 노래를 다듬는듯던교만디그가온디잇  
 는지라과상세심중에의심왈내미랑을천호지오래나더러하게 단장함은 처음이오전  
 일은일습의 상을넘은즉나를도라보아천만번못더니금일은일언반시업스니엇지괴  
 이치아니리오다시돌쳐싱각왈 단장을 성히 함은 구경하는재만함을 위함이오나드려  
 못지아니함은천함이 무잔하야의향을알미로다하하며스스로위로하더라아이오문득  
 이도라와제위상공이지나감을보하거늘상세몸을나리미랑을향하야 당춘원에가맛  
 남을말하고문외에남애려시랑이쇼왈형이몬저니르신가의심하얏더니과연미인을  
 권련하야급히왔도다리장군왈우리는무위로되석일풍정이만이최하엿거늘상셔는

점지아니신가하노라왕원의리장군의역기를치며쇼왈장군이과즈허의풍류랑인줄  
 모르느냐우문지뵈탄왈이거시또호티평성시라웃지말지어다서로회현담쇼하며물  
 머리를련하야 당춘원으로가니라차시미랑이반향을안져양성을고디하더니뜻그림  
 지섬들에옴기며청루제기모도니르러곳치감을지축하거늘홀일업서초창히니러서  
 며일기차환을머르며무슴말로은근이날으고당춘원으로간후양성이물을달녀미  
 랑의집압히다다라물을멈추고미랑의동정을담문홀초일기차환이문전에섯다가반  
 거회중으로홍전쇼찰을올니거늘마상에서퍼보니왈

삼춘 餞送 玉郎 一喜一悲 賤婢  
 삼춘을전송하고옥랑을기드리니일희일비라천비를머머러몬져감을고하느이다

양성이람필에미쇼문왈너는엇지주인을쓰라가지아니하노차환왈랑지가서며말하  
 시되상공이지나시거든이편지를드린후즉시오라만일아니지나시거든오저말라하  
 시더이다성이웃고물을채쳐도라갈시황성풍속이이날을당호즉상즈귀인으로하지  
 천인히모다당춘원에와구경하며노는고로공즈왕손이며호화즈데들이수리를몰며  
 돈을달녀동구대로에모헛스니양성이홍진을헛치고산호편을늘남애그물이눈곳흔  
 같기를열치며옥곳흔네굽을번개곳치더저크게소리하며만마총중에횡치하니요디  
 선군이옥룡을멍애하야운의에비등하듯만로형인이일시에피이하고일성의스네  
 다도와첨망하니마상미쇼년의준일홍풍치와미무흔용석을막불경탄왈고시의가련  
 인마성회광이로다함과곳도다원중에니르니룩음은란만하고방초는쳐쳐홀디양류



지상황잉은누구를보고지고우는소리춘식을앗기는듯빅비와렬렬총은무리무리  
 쇼년이오칠향차오운거는곳곳이미인이라량각이고왈금일노름이열요하는근년  
 중처음이라탕춘원이협축홀듯하니문져탕춘티로가스이다양성왈탕춘티는어디이  
 노랑진왈여괴셔스오리를더드러가니이다양성이량각을싸라삼스리를형하니과연  
 인매물쌀듯하야헛철길이업는지라물을잡고완완이형하며속혀보니일곡청계잇고  
 계상에수빅여쭈버들이들녘는티큰드리홍여들어들어수곡란간이빅옥을삭인듯드리  
 를건넌애평디에가무장을다갓스되전후좌우에홍철란간을두루고란간밖으로드러  
 가며츄티를무어가무장을굽어보게하고츄티상하에금장슈석이광채찬란하고문무  
 대관이잡좌하얏스니원리황성풍속이즈고로전춘지유를중히녀여이노름이본디기  
 녀와쇼년의쭈장흔바로대근리는지상귀인도성식호치를담락하야모도혀구경함이  
 니그노는법이반일을가무로딜탕다가석양이된즉제기두상에선젖든처화를싸혀  
 물에더지며송춘스를불으니이논고법이오후제에방탕함이더하야구경하는재음식  
 으로각각다도와소천기녀를먹이며기네또흔친한자에게풍채인물을보아우렘플데  
 를판단하니만일늬보다나음이잇슨즉서로처하하야닐으되미춘이라하니미춘이른  
 말은봄을사단말이오만일늬만못흔즉붓그러서로쇼쇼하야닐으되파춘이라하니파  
 춘이른말은봄을쳐치단말이라쳐시수빅명가네응장성식으로머리에처화를씻고가  
 무장에올나교방풍악을알외니스죽이료량하며가뭉딜탕하야랑랑호소리와편편흔

소매탕춘원을뒤집으니여러귀인과모든쇼년이일제히티에올나각각친흔가녀를눈  
 주어송정홀시미랑이츄파를흔녀죄우를들녀봄에다만과상셔러시랑제인이디상에  
 렬좌하고양성은보지못흔지라초연무료하니원리미랑은천명흔미인이라풍류장에  
 오른즉티도슈단이명헤민첩하기로장안쇼년이연석에설중미업슨즉막불패흔하더  
 니그초연불락함을보고혹환악을더지며혹쭈호를권하야분운흔담쇼와던도흔괴식  
 이전혀미랑을향하야홍치를돕고저하니가인홍중에일기양성이아닌죽엇저그무료  
 함을위로하리오아이오즈괴차환이니르거늘미랑이니러서로귀의말하며바야호호  
 미쇼하니은근흔소견을뉘알니오츠시청루제기각진기저하야승벽을다도며안석을  
 쇠고하야풍악이방장하니양성이량각을다리고티에올나가무장을굽어봄에명모호  
 치외취슈홍장이성군작티하야도리목단이춘풍에만발하고산호명쭈라렐흔하하  
 사름의안석을움작이지안는재업스되고중일기미인이가는허리와푸른눈섭의풍정  
 이죄중을압도하고복석단장이표연출중하니이설중미라설중미양성이원중에니  
 름을알고무료하던심시춘설및치살아지며호탕흔풍정이어린듯취흔듯떨치고무셔  
 에나아가니구경하는재담및치들녘는티미랑이눈을들어티상을보니일위쇼년이당  
 건록포로표연이섯는티팔조청산에서괴리엿고일덤단순에우음을써엿스니오미  
 불망하년의중량이분명흔지라알은레흔즉과상제의심흔거시오모로는레흔즉무음  
 이가려위이에제기를도라보며왈내부용군이풀어지니잠잔옷을긋쳐남고오리라하



고차환을 다리고가무장에나와기복쳐소에니르러적은병에수비주와파리반에수기  
실과로차환을주어왈이거슬가지고양부창두를차자주어양상공씩드리라하고설과  
에다시무석에나아가니차환이주효과렴을가지고되전에니르러봄에과연양부창뒤  
설화마를잡고섯거늘비반을주어상공씩드리라호대창뒤또흔짐작하고량외에게전  
하야양성에게을니니성이미쇼하고량외과긋치각각흔잔식마신후실과를집어봄에  
반중에수항글이잇스니왈

人海咫尺 關山萬里 蕩春臺 瀑布 歌舞罷 後  
인히지척에관산만리라탕춘뒤뒤에적은폭포잇스니가무를파흔후그리로되을가  
항느이다

양성이보니필적이총망하야십분명치아니나옥인의뜻을엇지모르리오미쇼하고  
소매로글시를써슨후병과쇼반을도로주니츠시미랑이무연에다시나아가짐짓반향  
을지체하며추과를홀녀되상을습히다가성의주과를먹은후과렴씨는모양을보고심  
중에그다정민혜음을더욱근절이녀이며무슈를떨쳐평성지조를꼭진이하니한궁비  
연이장상에노니는듯월전쇼이예상을느부기는듯화고는동동하야복춤을못치고상  
망은섬홀하야검무로드러가니양류세요에춘풍이휘느러졌고도화량협에향한이무  
르녹아장안쇼년은겨절칭찬하고교방제기는슈괴무면이라과상세어린듯이안져실  
심흔사람긋거늘러시랑이쇼왈미랑의가무는과저히의총희됨이앗갑도다우문지비  
단왈내일죽건안지부로가무를만히보앗스나티도와슈단이미랑에게는당치못할지

漢宮飛燕  
月殿素娥

建安

라상셔는가위풍류가희를두었다하리로다리장군이쇼왈척상들님이엇지가무들의  
론하리오풍류장제반풍정은두필무부를당치못하리라하며서로희현쇼하더니오  
륙기창뒤큰가즈에정보를덜허과상셔로야를찾거늘여러문외이밭아티상에드리니  
진슈성찬이불가승식이오뜨러시랑우문지부의음식이츠레로니름에각각소천가녀  
를불너권주히비홀시과상셔미랑을부르니미랑이마지못하야티상에오르며눈을홀  
녀양성섯든곳을습히애부지거체라심중에성각하되이는반드시폭포를구경하라감  
이로다의식차급하니엇지히비하기에정신이잇스리오거짓아미를썩고며허리동흔  
라건을글너머리를동히고겨오일비주로과상셔를권흔후고왈첩이두둥이대발하야  
오래안졌지못할지라잠간기복쳐소에가쉬고오리이다상셔대경왈랑이아싸검무를  
지리하게추더니엇지신과불평치아니리오일비를마시고가라미랑이빅단고스하고  
티에느러차환을다리고총총이폭포를차자가더라차설양성이미랑의가무를본후량  
외과외에느러왈드르니이티뒤에적은폭포잇다하니잠간가보리라하고되후로오륙  
보를헛헛애림간에석벽이들너잇고일도폭포석벽으로조차느리며그아래일좌반석  
이잇서가히수십인이안절만하고돌우에수기창뒤익기를쓸며나무를씩거차들다리  
다가성의음을보고황망이자리를피고영접하는지라성이괴이하야문왈너의는엇더  
흔사람이노창뒤왈쇼디는미랑청루에잇는창뒤로소이다말이못지못하야미랑이슈  
리를선을며차환을다리고자조거러니르러랑쇼왈내바야흐로종용이폭포를구경



코져하거늘엇더하신상공이님의 자리에 묻져안즈시느니잇가성이쇼왈아름다운슈  
 석이쥬인이업느니안젓는재곳쥬인일가하노라미랑이양성의말이유의음을숫치고  
 답왈이슈석은열인흔슈석이라상공이엇지흔자쥬인이되시리오성왈향내나는뜻이  
 라야봉답이영괴고일흔잇는동산이라야거매모히느니이슈석도쥬인만음을내스랑  
 하노라미랑이웃고석상에동좌하야물을구경하며은근흔정화와표일흔풍취돈연이  
 일모음을니즐나라아이오창두차환이오륙덥음식을정치풍비하게드리거늘성이쇼  
 왈일비쥬족할지니이오차장디흐은도로허정이아니로다미랑이쇼왈첩이금일전쥬  
 에실로흔치업서칭병모면코져하엿더니이오치오기는전허상공을이곳에서퇴음고  
 저함이라초초흔정성을스양치말으쇼서성이흔연이잔을기우리며저를들어정으  
 먹은후량의과창두를취포하하니라성이미랑과폭포밋히느리러손을잡고억기를  
 견쥬어고산류슈의놉코김흔정을말하더니미랑이오만히싱각하되내청루기녀로양  
 성을이오차정천하되과상셔를비각지못하면양성과는은말이왕리흔스름이니내엇  
 지규중부녀의절옥두향음을본밧으리오양성의문장이엇더흔지내시험하야금일전  
 춘연에맛당히양성의풍류를빗내야과상셔로하야곰붓그리게하야제조되하게하리  
 라이에글흔귀를흠허왈첩이맛츨죽경으로일귀시를싱각하얏스니그아래를취우쇼  
 서성이대희하야그글을무른대미랑이외여왈

落花山寂寂 疎러지느뉘에산이적적하고

流水石琤琤 흐르느물에돌이정정하고도다  
 양성이칭찬하며싱각지아니하고죽시응귀왈

多少惜春淚 만코적은봄을앗기는눈물이오

淺深盟海情 엿고김흔바다를뵈제하느정이로다

미랑이양성의얼골이곱고년괴어려문장의공귀부족흔가하엿더니그응구첩디흐음을  
 보고심중에더욱대경하야쥬중가션을들어석벽을치며단순을열어알연이그글을노  
 래하니산풍이삼삼하고슈성이잔잔하야가성과션갓더라다시술을가져이삼벽를마  
 신후미랑왈첩이좌중에고치아니하고온지오래때동료들이의심할지라도라가오니  
 상공은다시전쥬교로오샤제기의전쥬음을구경하쇼서성왈전쥬교는어디잇느뇨미  
 랑왈아싸오시든석괴곳전쥬교라제기들이그드리를가에다모도야전쥬하느이다성  
 이응락하고미랑을몬져보내고석상에잠잔안젓다가바로전쥬교에니르려석란을의  
 지하야물을굽어봄에취흥이도도하더라초시과상셔와청루제기미랑을차즈되잔곳  
 이업서막불의괴하더니홀연미랑이옥안에쥬흔이그득하야슈디느러지며슈식이기  
 우러져어디로조차오거늘제기엇지눈치를모르리오다만인히중에그누구임을물나  
 미랑의눈가는곳을숨히며웃고무려왈미랑이그스이어디갓더뇨미랑이쇼왈금일은  
 송춘하느날이라첩이봄을조차갓더이다제기대쇼하니과상셔또불너문왈랑의동세  
 엿더하뇨미랑왈쾌차하지못하느이다상셔역시십년청루에노든눈치로엇지미랑의

餞春橋



曹子建

거동을철분의심이업스리오이옥고청루제기풍류를알외며전춘교을가로갈시모든  
 쇼년과과상셔려시랑등이또흔좌석을음겨석교상에너르니석양이지산하고혜풍이  
 화창흔디청계일곡이교하에평포하고취슈홍장이슈중에조요하고관현스죽이이월  
 처량흔중수빅명가네머리에셔진치화를일시에빠혀들고선선이춤추더니홀연미랑  
 이제가를보며왈우리승평성디에풍류제공을피셔년년초일에흔노래로전춘하니이  
 엇지즈마업지아나리오금일맛당히제공의글을받아각각그글로노래함이도치아니  
 하나과상제왈미랑의말이비록아름다오나일력이진하고전춘이급하야일슈시를엇  
 지밋쳐지오리오미랑왈석의조조건이첼보성시하엿스니첩이맛당히제위상공압히  
 첼보로드러가시를청하리이다리장군이칭찬왈미랑의말이심히운치잇도다날곳흔  
 무부논의로홀배업거니와모든쇼년과제위상공은각각지조를다하샤여러사람의흥  
 치를돕게하라그중려시랑우문지부는평성시각으로조입하더니심중에대희하야일  
 시칭찬하거늘미랑이마로연에룡향목을갈고청옥관양호필을빠혀랑기동기로들니  
 고륙쪽홍라군을펼쳐몬져첼보를거러과상셔압히드러가서니과상제얼골이붉어왈  
 과조허의등과흔지임의수십년이라빅면셔성의도충쇼기를폐흔지오래니랑은라쳐  
 에가밭으라미랑이웃고려시랑에게너르니시랑이침음쇼왈넛적왕불은글을지으라  
 흔즉니불을덥고벽을향하야도라누어반일을성각하얏스니내본디민첩흔저죄업논  
 지라랑은라쳐에청할지어다미랑이다시우문지부에게너르니지휘눈섭을썩으며원

王勃

楊太真

산을비라보아싱각하며일변붓을잡고쓰라하다가다시고되하니미랑이쇼왈시각이  
 지냈스니밭비솜이도홀가하느이다지휘인하야싱각이삭막하야붓을더지고물너안  
 논지라미랑이이에모든쇼년중문명잇는자를갈히여수쳐에너르니누능히인히중에  
 의마초격하논저죄잇스리오미랑이심여쳐를허희함에과상제심중에다행이녀이더  
 니미랑이라군을썰치며랑쇼왈이적선이업스니양태진의봉연함이붓그립도다짐  
 짓추파를홀녀좌우를슌히논레하다가련보를음겨다시흔곳을향하거늘모다보니일  
 위쇼년이머리에연사당건을씻스며몸에륙포를남고쥬흔이몽롱하야일지련해아춤  
 이슬에저진듯돌란잔을의지하야류슈를굽어보며미랑의나름을쳐듯지못하거늘미  
 랑이옥음을놓혀왈엇더흔상공이사름을모르시느뇨그쇼년이놀나돌쳐보니일기미  
 인이런연고왈일슈청시를빌니샤전춘가신에흥치를도으쇼셔그쇼년이미쇼왈내맛  
 춤취하야시령을듯지못하얏스니엇지오리오미랑왈시령은첼뵈오글데는전춘이  
 오또첩의명은설중미니미조로운을달아일슈절귀를주쇼셔그쇼년이다시미쇼하고  
 붓을잡아먹을흠벅못쳐미랑의라군우허쓰니그표일함이포풍취위오그빛남이룸비  
 봉위라방관제기와좌우구경하논재담又하야척척청선하니미랑이글을받아들고심  
 심샤례하며추파를홀녀잠잔송정하고물너나니누그본디천함을의심하리오과상셔  
 려시랑이놀나며붓그러그글을가져오라하야보니그글에왈

紫陌紅塵拂面來 靑은언덕의靑은티살이낫을썰쳐오니



無人 不道 餞 春 迴   사 름  마  다  봄  을  보  내  고  도  라  온  다  닐  으  지  아  니  하  는  니  업  도  다  
莫 道 餞 春 春 已 去   봄  을  보  내  여  봄  이  임  의  갓  다  고  닐  으  지  말  라  
春 深 更 看 雪 中 梅   봄  이  깊  을  때  다  시  는  가  온  디  미  화  를  보  도  다

과상세 변석 무어 하고려시랑 우문지부는 락담상 괴하며 리장군은 찬불용구 왈런지로  
다하니 그쇼년은 별인이 아니라 곳양성 일너라 일티제기성의 문장을 놀내며 그 풍치를  
흠모하야 다도 와라 근금상을 펼쳐분분이 일슈시를 구하니 성이 취흥을 띄여 구불절음  
하며 슈불덩 필하 고경각잔에 칠십여 슈를 휘쇄하니 귀귀주옥이 오즈즈 풍정이 라 미랑  
도 오히려 성의 민첩한 시지이려 흥을 맛지 못하엿다 가 망연이 보고 차경차 회하며 차셔  
차이 하야 도로 혀 슈응이 괴로움을 녀려 하야 제기 드려 왈 칠십여 슈를 노래 함이 묘홀지  
니 그 만전춘 함이 묘홀 가하 노라 양성이 붓을 들고 소리 하야 왈 내 비록 일 두 뱃편 하든 리  
청련의 지죄 업스 나 제랑으로 향우지 탄이 잇게 아니 하리 니 만일 취군 흥상이 업는 차는  
일편 조희를 가 지고 오라 언미 필에 또 수 십 명기 네 처마를 버려 각 각 글을 밧아 가 더니 그  
중 일기 네 초연 독 좌 하야 불언 불쇼 하 고 무슴 성 각이 잇는 듯 혼 지라 성이 괴히 이 녀여  
불너 문 왈 랑은 엿지 글 밧기를 원치 아니 하는 노 그 기네 슈 괴 부 답 하 거 늘 성이 붓을 머  
르 고 그 용 모를 즈 세 보니 운 빈이 쇼 슬 하 고 옥 안이 초 채 혼 중 아 담 혼 티 도와 용 용 혼 거 동  
이 십 분 정 묘 하 고 칠 분 아 름 다 와 일 지 부 용 이 룩 슈 에 소 사 는 듯 삼 춘 방 란 이 유 곡 에 휘 엿  
는 듯 다 만의 상이 무 광 하 야 실로 글을 씌 직 지 아니 혼 지라 성이 그 뜻 을 짐 작 하 고 쇼 왈 폐

李 青 蓮

의온포로 불치 호락은 근조의 어려온 바이라 내 흥중에 일슈시 늠앗스니 랑의 단포상을  
버리라 그미인이 더욱 할루왈이 또 혼첩의 의상이 아니로 소이다 성이 심중에 축연하야  
그 일흥을 무르니 그기네 왈 빙빙이 니이다 우문왈 춘광이 얼마이 노기네 왈 십스세로 소  
이다 성이 그 만히의 심왈 용모 조석 이 더 못치 아 름 답 거 늘 장 안 쇼 년 이 거 두 지 아 니 하 니  
필 유 곡 절이 로 다 붓을 들고 저 하 더 니 제기서로 마르 치며 왈 빙 랑 이 스 족 부 녀 못 처 교  
만 당 돌 하 야 청 루 쇼 년 을 안 하 에 보 더 니 금 일 취 졸 이 나 도 다 성 이 그 말 을 황 연 대 각 하 야  
즉 시 즈 기 한 삼 을 떠 혀 빙 빙 드 려 붓 들 나 하 고 일 슈 시 를 쓰 니 그 시 에 왈

一  朵  亭 亭 旱 地 蓮   훈  열  기  덩  덩  록  록  디  에  련  꽃  이

香 消 露 薄 瘦 堪 憐   향  이  살  아  지  고  이  슬  이  얇  어  파  리  흠  이  견  티  여  어  엿  부  도  다

顛 倒 春 光 迎 送 恨   던  도  허  봄  빛  을  맞  고  보  내  는  훈  은

羞 從 桃 李 共 爭 妍   도  리  를  조  차  훈  가  지  고  음  을  다  도  기  를  붓  그  려  하  는  도  다

성이서 필에 빙랑을 주며 쇼왈 내 지즈 무상함을 위함이 아니니 랑은 엿지 써보이 경거하  
랴 하는 노빙빙이 추파를 흘녀성을 보고미 쇼왈 상공이 문장으로 주시니 첩은 맛당히 노  
래로 화답하리이다 하고 단순을 열어 그 글로 일곡을 불으니 목은 소리 옥을 바아는 듯 반  
공에 료량하야 물결듯 요란하든 탕춘원이 적연무성이라 제기와 제쇼년이 막불대경왈  
빙랑도 노래하는 날이 잇스니 가위 변괴로 다미랑이 제기를 제축하야 전춘홀시 일시에  
취화를 슈중에 더 지니 무릉도해 류슈를 쓰르는 듯 봉리 처운이 벽공에 허여 진듯 향풍이



니러나고서석이영귀는듯수빅홍장이전춘스를불으니가곡과악성이반향을달랑하  
 다가범범호호치혜수상에덫혀은은이홀니묘연이되지아니흠애제기풍류를변하야방  
 초스로노래하야서로각각록음간에훗혀저다도와방초를구하야만일몬져엇는자는  
 서로치하하니이느위지영하회라봄을보내고너름을맛단말이라빙빙이초연독좌하  
 야요동치아니하거늘제인이서로지덤하야풍치업슴을조롱하니양성이빙빙드러문  
 왈천춘영하흠은아름다운노름이라랑이엇지홀로불락하느노빙빙왈봄을보내되가  
 는곳을아지못하며너름을마지되오는곳이업스니송구영신에긋하여관심홀배아니  
 로되지금송춘하그자리에영하하야아차초창하그도라서즐김을첩이도화하지아  
 니하느이다설중미랑랑이웃고슈중에란초를뚝어들고오며왈추국춘란이무비성경  
 이니송춘영하에아니늘고무엇하리오하거늘성이또흔대쇼하그랑랑의말이다유리  
 하나빙랑의단아부잡흠을스랑하더라일모파연하그도라갈세장안쇼년중랑기호협  
 이잇스니일기는퇴문성이니대장군퇴던풍의데이손이오일기는마등이니파로장군  
 마달의아들이라두쇼년이효용호랑하야청루로집을삼아무샤출입하더니초일랑춘  
 교에셔양성의문장풍치를보고심중에대경하나누구임을아지못하얏더니일모후양  
 성이석화마를두고횡치하야가는지라되문성이늘나마등드러왈이물이연왕부홍란  
 성의드느말이라그쇼년이엇지연왕의데스즈고성이아니리오우리조휘일즉고성을  
 칭찬하시며날드려교유하라하시더니과연비범호인물이로다바로미랑청루에니르

雷文星  
馬騰

張風

러미랑을보고왈랑이아싸전춘교에글짓든쇼년을알쇼나미랑이짐짓쇼왈홍장가인  
 이빅면서성을엇지알니오문성왈이느반드시연왕상공의데스즈고성이라랑이장안  
 명기로엇지이러호풍류저저를천홀스음이업느쇼말홀스이에또일기파락회드러오  
 니이느허랑방랑호무뢰발피라성명은장풍이니기너등이칭호하기를장바람이라하  
 더니초시드러와좌에안즈며되마량인을보고왈우리는제느미랑을자조찾지못할가  
 하노라마등왈이바람이또무슴바람의소리를하라하느쇼장풍이란왈과상세금일랑  
 춘티에서도라와무단이미랑을의심하야아싸나를청하야미랑청루에든이느쇼년을  
 일일이알아오라하니필경풍패적지아니홀지라늑과상셔의위세를당하리오되문성  
 은미쇼하그마등은장풍의쌈을치며썩지저왈이용덜흔바람아십년청루에바람으로  
 천명하느놈이과상셔의위풍을겁내니엇지가련치아니리오미랑이또블연작석왈창  
 가느본디고해업고의기를주장하느곳이라상셔위령이묘당에나헿홀지니엇지청루  
 에당하리오선성이이긋치겁홀진대다시첩의문전에두족지말으쇼셔장풍이추언을  
 듯고대노하야니러서며왈내호의로전하느말을이긋치홀썩리니장안허다흔청루에  
 랑의집이아니면철마갈디업스리오분연이나가거늘미랑은중시심약흔너저라심중  
 에성각하되양상공은귀공적오과상셔는무뢰방랑지인이라만일출입을과찰흔죽엇  
 지위리치아니리오이에되마량인을향하야이실고지왈량위상공을숙이지아닐지니  
 과연랑춘티에셔글짓든쇼년은양성이라쇼년지심으로첩이임의천홀이잇스되양성



을위하야장종코저하더니스귀임의불행하니만일과상세야괴요란흔죽엇지하리오  
 되문성이쇼왕내임의짐작하얏스니랑은근심치말라우리랑인이랑을위하야우익이  
 일에랑을위하야과상셔의비루함을절충고양성을천하든말을고하니랑인이단말내평  
 상봉이로다하더라차설양성이철기미성호쇼년으로우연이풍류장에오입함을승시하  
 흘모음을것잡지못하야하마위래흔일을당할변하니날마다부친의입결함을승시하  
 야미랑을차자가우연락으로날을보내니엇지소문이나지아니하리오과상세알고장  
 풍제인을청하야주육으로되접하며금빅으로연람하고왕내창가에투족흔후로제군  
 과교유함은의괴를주장하야불평흔곳에서로밋고저함이라내미랑을천하야경가파  
 산하기에니름은제군도알녀니와이제엇더흔유취으히미랑을싸야나를저브리게하  
 니제군의모음에는분하지아니하라나의구일안면을보아그쇼년의출입을괴찰하야  
 내게동하라내흔번설치코저하노라장풍이팔을뻗내여왕선선모르는데도술이잇스며  
 부쳐모르는데름이잇스리오장안벽여쳐청루의허다흔기녀의눈흔번삼작이며출흔  
 번비얏음을엇지장풍모르게하리오내몬져외고홀지니상공은임의로설분하쇼셔과  
 상제대희칭찬하니이날북하장안쇼년이과상셔의위세를써려미랑을감히찾지못하  
 니문전이팅락이라일일은황태조탄신에연왕부지도라오지못하고동공에야연홀셔  
 괴성이황흔월석을드미랑을차자니르니미랑이철상에누어쇼세하지아니하고습사

卓文君 長卿

흔살작과아담흔얼골에루흔이아롱져그티되더욱어엿분지라성이압히나아가집슈  
 왕랑의신괴혹불평하노미랑이초연부답하고게얼니러나성의품에안치며얼골을  
 가슴에다히고늦겨왕상공이첩을엇지코저하시는쇼성이쇼왕랑이엇지이코치견디  
 지못하느냐미랑이부답하며랑안에루쉬덤덤하고다시도라누어희희탄식하늘성  
 이심중에의아하야곡절을무른대미랑이다시니러영영흔눈물로축물을브라보며릭  
 락부답하니성이조급하야옥슈를잡아다리며소회를핍박하야무른대미랑이단말락  
 문군은장경을천후장경이문군을저브리름애문군이빅두음을지어쓴엇거니와첩은  
 문군과상반이라첩이청루천중으로불행이상공을되셔무익흔정근을미쳤더니이제  
 상공은첩을저브리지아니시나첩이상공을저브리는모양이되오니엇지원통치아니  
 하리오성이그무슴뜻인줄모르고침음부답하니미랑이이에고왕첩이과상셔를천흔  
 지수세에비록그위인을불안이녀이나창기의몸이라진퇴를임의로못하엿더니외  
 상공을흔번외음애심하하야같이되실가하얏거늘이제과상셔의하야첩의청루에  
 왕리지인을괴찰함애장안쇼년이그위세를잡하야금일첩의문전에작라를철만흔지  
 라첩이또흔두려흔배업스나다만성각건대천금지구로천첩을인연하야욕을당하실  
 가저허하오니브라건대첩을쾌럼치말으시고면화하실도리를성각하쇼셔설파에함  
 루무연하거늘성이거짓놀나는데하야알나는일기서성이오과상셔는정중흔지상이  
 라일시풍정으로랑을천하엿더니스괴이리될진대내다사랑을찾지못할지라랑은구



연을니어 무단 풍파를니리허지말라미랑이 초연변식하고 망연무어하거늘성이다시  
 미랑의손을잡고쇼왈동원도리청춘을전송하고전천양류록음을지촉하니창가쇼부  
 는눈섭을썩고지말지어다조고로청루에주인이업느니과상세엇지하리오술을가져  
 오라하야좌슈로미랑의손을잡고우슈로석상단금을다리허호방호풍정이조곰도구  
 속함이업더라과상세비록정경지렬에쳐하얏스나문하의든이는재무비패뤼라츠일  
 래조탄신에입결하얏다가몬져되조함에술을대취하고미랑루전에지나더니장풍이  
 주가로나오며조만하고왈미랑이엇더하쇼년과달탕이노는이다상세대노하야집에  
 도라가지아니하고길가문각의집을치우고수십기무뢰쇼년을초집하야밤드후리랑  
 의청루를부슈고져홀시장풍이몬져내다라선봉되기를청하거늘과상세허락하고술  
 을진취하게먹인후수십기잡류로몽치를지니고성군작당하야미랑청루를향하야오  
 니고세막능당이라팔경엇지되고하회를보라

데육십일회

방랑함을경계하야인성이괴성을부짓고

락성연을베푸러빙랑이 미랑을청하다

戒放蕩仁星責箕星

宴落成冰娘請梅娘

각설츠시장풍의일디몽치를차고미랑청루를향홀시청루에모닷든쇼년과구경하느  
 재흔디섯기여미랑청루에들입하니뢰마랑인이역시그중에드러서로약속하고양성

을돕고져하더라양성이미랑과촉을도도고조약히탄금하더니홀연문의요란하며장  
 풍이크게소리하고루에뛰여오르거늘미랑이대경하야성의손을잡고왈일이급하니  
 상공은잠간피하쇼셔성이쇼왈내비록방랑하야몸을삼가지못하엿스나엇지창황하  
 거조를하리오의구이탄금하거늘장풍이몽치를두루며바로양성을범코져하더니홀  
 연등뒤에일기쇼년이크게소리하며장풍을집어루하느리치고늘내발길과패흔  
 주머귀로일장을지쳐나가더니루하에또일기쇼년이대호일성에어두운중동충셔돌  
 하고지남타복하야각기제인을풍우조치모라내여문의로썩치니그호한호의세들누  
 결우리오장풍제한이일시패귀하니원리루상에셔장풍을집어더지든자는되문성이  
 오루하에셔모라내치든자는마등이라양성이두쇼년과구경하든사람을일변청하야  
 루에오르라하고일변권주하며쇼왈조리청루에이러호풍패잇스나그가온디또호의  
 괴를불지라과상셔일호령에오르쇼년이청루를여어보지못하니엇지한심치아니리  
 오제공중과모를친흔재잇거든도라가닐으라승평저상이풍류가희로쇼견함은잇거  
 니와쇼년을둔취하야청루를치는거슨불가하다하라모든쇼년이일시에제성청찬하  
 니라마등이미랑드러왈과상셔는말할배업거니와장풍의선봉됨이엇지동흔치아니  
 리오내주머귀로흔번더치지못하거시흔이로다성이쇼왈마형은심척지말라내그위  
 인을봄에파락호에갓가오나또하가취할곳이잇스니제공중아는재잇거든장선성을  
 청하야오라말설일인이응락하고가더라차설과상제인의패귀함을보고불승기분



李張三

하야 장풍등을 대척할양 병천일에 용지일회라 내심년청루에 제군을 천하야 금벽을 앓  
 기지아니 하얏거늘 이러한 때일분유익함이 업스니 종금이 후로 든이지 말지어 다하고  
 분연이 도라가니 장풍이 어허업서 방황하며 유가를 찾고져 하나 랑림일전이 라길이란  
 식하더니 홀연 주봉리시 불너 왈 장삼아 어디로 가는 노 장풍 왈 내정허 유가를 차자가 노  
 라리시 왈 내과상셔를 위하야 성공치 못하니 엇지 용렬치아니 리오 장풍이 쇼왈 그노그  
 러하다 마는 내아사 그쇼년을 잠간 봄애 선평도 골이 오 풍류호걸이라 내몸이 설쥬미라  
 도과상셔를 버릴너라 리시 장풍의 억기를 치며 왈 내과연알아 보앗도 다 그쇼년이 여초  
 여초하야 너를 청하니 진짓 풍류남자의 령룡슈단이 라긔치가 봄이 엇더하 노 장풍이 대  
 경대희 왈 그어린으히 그리하드른말이나 리시 장풍을 다리고 미랑의 집에 니르니 양성  
 이 장풍의 손을 잡고 왈 공은 독록헌재로 다대장 뷔청루에 출입함애 성년 즉풍패니 러나  
 고우은 즉춘풍이 성길지니 금야청루쇼년이 모든 좌석에 엇지 장바람이 업스리 오일재  
 대쇼하니 장풍이 팔을 썸내며 왈 내 비록바람이나 십년화방의 늴은 거시 눈치라 몽치를  
 들고 별긔치달녀드나 속중은 다잇느니 제군은 다알니로 다성이 미랑드려 일비를 들어  
 장풍을 권하라 하니 미랑이 잔을 들어 웃고 왈 청루의 고풍이 업스지오래더니 금일제공  
 이 풍치를 빗내여 살풍경이 살아지고 풍류랑이 만좌하야 만면춘풍에 담쇠성풍하니 이  
 는 다 장풍선성의 호협지풍인가 하노라 일재대쇼하고 장풍이 대희하야 드디여 양성의  
 우익이 되니 즈츠로 성의 일흠이 장안청루에 회자하고 성시쇼년이 다 휘하에 굴복함애

楚雲

凌波、鶴  
上仙、眞  
眞、鸞

雲中月

양성의 외입계경이 더욱 능란하야 축일되 마 장삼인비로 황성청루에 편답하니 그중 초  
 운의 노래며 룡파의 춤이며 학상선의 성황과 진진의 거문고와 연연잉잉의 저식이 유명  
 한기네라 일일은 양성이 탕춘티에서 보든 빙빙의 단아함을 홀번 찾고져 하되 집을 알길  
 이 업더니 장풍을 만나 문왈 군이 흑빙빙의 집을 알쇼나 풍이 쇼왈 걸인의 집을 알아 무엇  
 하라 하노 노성 왈 다만 널으라 풍이 원고기치며 왈 서교방길가에 서여 진절긔 혼집이 빙  
 빙의 청루라 하더니 다성이 웃고 수일후서 교방을 차자가 니길가에 과연 허소 혼집이 잇  
 거늘 문을 두드리니 일기로 피나와 문왈 누집을 차지시노 노성이 문을 잡고 왈 이집이 빙  
 랑의 집이 아니나로 피손을 들어니 마에 언고문져 물과 안장을 숨히더니 성의 얼골을 쳐  
 다보고 다 황왈 상공이 엇더하 빙빙을 차지시니 잇고 성 왈 빙빙의 집을 차노라로 피쇼  
 왈 그상공이 얼골은 고호나 청루를 구경치 못하시도 다 황성허다 청루에 엇지 괴졸하고  
 창피 혼빙빙을 보고져 하시노 노이 집은 운중월의 집이라 안석이 절디하니 그를 보쇼서  
 성이 쇼왈 내긔하야 할말이 잇스니 과랑은 다 만빙빙의 집을 그려치라로 패도라서며 손  
 을 들어 다음들 재집을 그려치며 혼자 말로 앓가온 상공이 부절업시 볼것업는 비렁빙이  
 집을 차자가 노고하야 춤밧고 돌이 질하거늘 성이 웃고 그 집을 차자 위선 찬찬이 보니 불  
 분 혼늬져 지기와 와부러진 첨아의 일과 문이 동퇴서 비하야 좌우로 밧쳐 잇고 문안문밧  
 게 풀밧이 황량하야 인적이 업는듯한 지라 성이 물물며 뜨고 소리하니 일기차환이의  
 상이 남루하야 현순벽결이 압홀무리 오지 못하야 나와 응문하거늘 성이 문왈 이거시 빙



랑의집이아나야차환이슈습하야도라셔며왈그러하니이다성이심중에추연왈내  
 주인을잠간보고져하노라차환이드러가슈유에다시나와드러오라하거늘성이물을  
 밧게세우고차환을싸라드러가니빙빙이운빈이쇼슬하고옥안이쳐랑하야페페의상  
 으로호외에맛거늘성이초연집슈왈랑이전춘교상에히후상봉흔양성을싱각홀쇼냐  
 빙빙이런연디와첩은드름애빅두여신이오경개여귀라사람이모음을모른즉쇼석상  
 디하나간담이초월고고흥금이상쇼흔즉비록빅골이진되되나정근이살아지지안  
 니셔진의찬거슬글고고흔야의구슬을더저미첸흔자최를군져니즈신가하엿더니  
 곳치근념하샤신근이심방하셔니감샤하도소이다성이빙랑의말이감개쳐랑흔중다  
 정관곡하야록록흔녀저아님을알고좌에안즈며단왈랑의안식과지조로이곳치근궁  
 함늘의심하노니종속중중하야엇지야용열의를싱각지아나하노뇨빙랑이쇼왈상공  
 이임의충곡으로무르시니첩이엇지소회를다하지아나하리잇고첩은본디황성청루  
 의세계국창이라첩의모위오랑이독보당세하든명기로첩을마르쳐왈창기라하거  
 시비록천하나모음가지는법이스족부녀와다름업는니창기의지조는군조의도덕이  
 오창기의가무는군조의문장이라네부디지조를첸이말고가무를다가세상전하  
 가성을일치말라하기로첩이그말을금석곳치척희여평성소혹과가풍문견이그러하  
 야년금십스세에츠세상을열력하야봄애청루풍기도흔고금이달나지조를직현즉  
 괴졸함을쇼롱하고가무를말흔즉아는재업서다만남즈를눈주어지물을낙그며말습

衛五娘

을교식하야염량을습히니첩이종중중속하야구습을고치고져하나심년문견을일쇼  
 난변이라첩이또흔청춘의녀져니엇지풍정에담박하리잇고마는실로장안쇼년의무  
 퇴잡란함을즐겨아나하더니향일전춘교상에용광을총총이외우고즈연심셔요란하  
 야구구의녀의가련흔정회를범범흔군지습히지못하실가하엿더니금일아름다오신  
 풍치를다시되오니슈스지일이나유성지년이로소이다성이령파에그정경이가련이  
 오그지조는가상이라허희단왈이집은엇지흔집이뇨빙랑왈이는세상전하든청루  
 라첩의모잇실제가산이부요하야장안청루중거감이러니첩피죽은후첩의나히어리  
 고친척이업셔무퇴잡뤼지물을겁탈하고집을불지름애구일던형이츠츠한심하니  
 다양성이탄식하교슈중산호편을차환을주며왈슈가에던당하고술을가져오라슈유  
 에차환이일호주를가져니르거늘랑인이디하야수비를마신후성이쇼왈침향당은리  
 삼랑이양래진과힝락하든곳이오림춘각은진후췌장려화와딜랑하든집이라만승련  
 조의일디풍류로도구일자최를차질곳이업스나하물며위오랑의청루리오슈연이나  
 내랑을위하야중슈코져하노니스양치말라빙랑이더두하교부답하거늘성이즉시몸  
 을니러와금일랑을차집은집을알고져함이라명일야심후다시중용이올거시니기드  
 리라빙랑이문외에나아와보낼시풍정이불언중에그득하더라성이부중에도라와성  
 각하되근지조를다가때를못맛다면불우지탄이잇거니와엇지청루인물에빙빙하  
 혼재잇슬줄알앗스리오장안쇼년이눈이업셔거두지아나하니내맛당히슈습하야장

沉香亭 李三郎 楊太真 監春閣 陳後主 張麗華



王子平

발하리라 이에 장안중일기 부호왕 조평을 청하니 조평은 연왕문하에 출입하야 가인과  
 무이흔 재라 괴성이 조평 드러와 맛춤 쓸디 잇스니 빅은 일만량과 잡치 일빅 필을 엇어 줄  
 쇼나 조평이 당황량구에 왈 상공이 저물을 이긋치 쓰실곳이 업슬지니 무엇하랴 하시느  
 뇨괴성이 정석왕내공의 저물을 그저 쓰지 아니라 조평이 쇼왈 엇지를 계교하리오  
 다만 연왕 상공이 알으신즉 문하에 득죄함이 잇슬가 하시이다 괴성이 미쇼왈 공의 말이  
 충직하나 나의 방랑흔 죄로 공에게 미치지 아니라 조평이 응락하니 괴성 왈 내 명일창두  
 를 보내리라 괴성이 혼영을 맞친 후 일기가 동을 다리고 교방터로 에나서니 월석은  
 명랑하고 루고는 삼경을 고하더라 츄시빙빙이 양성이 올줄 알고 잔신히 수비를 엇어 두  
 고 고되하더니 양성이 당건청삼으로 월석을 두니 르거늘 빙랑이 웃고 마저서로 손을 잡  
 고 향월하야 안즈니 양성의 표일흔 풍채와 빙랑의 아담흔 조티월하에 더욱 영발흔 지라  
 차환이 주효를 받들어 드리니 양성이 혼연 쇼왈 빈가되 격이 더욱 다정하니 이술은 내친  
 히히빙하리라 각각 수비를 마실시 빙랑이 옥호를 치며 수곡가로 권유하니 처음은 양춘  
 빅설이 료료렬렬하야 화답하리 업슴을 갹개하다가 다음은 고산류슈의 아아양양함이  
 지금맛남을 탄복하니 성이 기용탄왈 미지라 츄곡이 여제인의 목이 어두어 이긋흔 성  
 식으로 이긋치곤로하니 이엇지런디 조화의 공변됨이 리오 빙랑이 쇼왈 창기라 하시거  
 시이 적스인하니 열골이 고흔 자는 날은 안석이 오티되고 흔자는 날은 조석이 라 초왕  
 이세 요를 사랑함애 허리가 는 재득의하고 위궁에 아미를 숭상함애 눈섭고흔 재등양하

衛王 楚王

無鹽

니 각각 때를 맛남이 오그중모음이 아름다운 자는 날은 심석이니 땡광무염을 날음이 라  
 안석으로 열인흠은 쉽고 심석으로 스인흠은 어려오니 첩이 비록 불민하나 안석 열인흠  
 은 붓그럽고 심석 스인흠을 조쳐하니 그 취함이 엇지나 히리오 성이 칭찬하고 야심 축  
 잔흠애 정연을 미질서 포옥 절화하야 락이 불음하고 염이 불교하야 특슈원앙의 감동이  
 미진하야 원존계성이 효석을 저축하니 빙랑이 슈습무력하야 일지명화춘우에 저진듯  
 하거늘 성이 권련흠을 불승하야 다시 집슈왕내도라가다 쇼은 조를 보내리니 청루를 중  
 슈하되 석일제도와 다름이 업게하교나의 부조를 말설치말라 양성이 도라와잇흔날 빅  
 금오천량을 빙빙에 게 보내니 빙랑이 즉시 공장을 불너 시역 할식 소문이 퍼짐애 청루제  
 기와 장안쇼년이 막불경괴하니 그 출처를 몰나 짓거리더라 차설괴성이 모친 떠는 지임  
 의일삭이라 연왕씩 근형을 청득하고 힘장을 저축하야 취성동에 나르러 태야 썩외온 후  
 즉시니 당에 드러가니 선숙인이 으조음을 보고 망망이 마조나와 괴성의 손을 잡고 반김  
 이 과하야 눈물이 흐르거늘 괴성이 분던 근던지 효로 수월그리든 모친을 상면하니 강보  
 적조의 유연흔 모습으로 품에 안치며 반기니 숙인이 다시 어로든져 왈네 열골이 엇지  
 이다 지수척하뇨 괴성 왈 수일형역에 피곤함인가 하시이다 인성이 또 드러와 형대상되  
 하야 모친을 띄시고 그스이 천당안부와 부중범스를 일일이 고하며 즐기더라 일태야  
 를 되셔 쇼석당에 가노다가 일모후도라와 모친압히 안즈며 응석하야 왈 쇼지그스이 춘  
 풍화류에 주량이 널넛스니 술을 조곰 주쇼셔 숙인이 척왈네런성이 근졸하시 아니하시거



늘만일만히마신죽엇지대단방해롭지아니리오래애본디술을도화하시지아니기로  
 가중에듬이업도다하고시비를불니왕덩조아래왕과의술이도타하니흔병을사오라  
 슈유에서비일호츄를가지고오거늘괴성이대희하시천히기우려삼스비를마시니속  
 인이대경하시병을아셔금초고심중에불열하니괴성이웃고나가바로인성의셔당에  
 니르니인성이정금위좌하시대후를보거늘괴성이안두에안즈니인성이쇼왕현데지  
 가하시근일무엇하였노고괴성왕독서지가에혹화류도하시며혹심방도하시이다인성  
 이미쇼왕방춘화시의화류는도커니와친구는엇더흔사름을교유하시노괴성왕거금지  
 세하시교금지인이라선악이키아시라하시쇼데는현우청탁을가리지안하시이다인성  
 이괴성을속시흠애그말이방탕하고또얼골에쥬흔이그득하시거늘심중에미타하시키  
 용정석왕고지성인이술을경계하고봉우를턱하시심은심성을한양하고도덕을강  
 론하시방탕하디니르지말게하시심이라현데이제잡류를천하고광약을마시니비록현  
 성이탁월하고집심이리확하시나맛그로음담패설을하시며안으로벌성스괴흠을불면하  
 리니금일잡은모음이명일소할하고명일소할한모음이우명일방탕할지라모음이흔  
 번방탕하죽슈습지못할뿐아니라스스로방탕함을쳐듯지못하시혹용셔하시며혹조부  
 하시필경괴약하든거시세월이여류하시익슈무성하죽조연정대지인이되지못하시  
 니현데엇지이일을성각지못하시노괴성이유유하고다시말하시되효유하시니말씀은  
 맛당히웃기애쓰려니와쇼데드르니던디성물지기는호탕활발하고로만물이성성하

는니이제척상을디하시구진한말삼과구속흔괴상으로평성을보냄은이엇지혈괴강  
 장흔자의흠바리오래극이변하시량외되고량의변하시상과만물이되니성인지도  
 는이를호츄흠이라미묘하디니러나중분위만스하고말부합위리하시니대범사름  
 이세상에남애어려셔는흔모음뿐이라이노래극미분지시오조람애이스문하고목스  
 현하시오른철정이성기니식식은성애오이락은정애라호방지심과풍류지락이엇지  
 업스리오이닐온래극이변하시상만물이됨이오미묘하디니러나중분위만스흠이  
 라괴혈이덩하고만스를열력후바하시호로삼십이립하고스십이부동하시어지선  
 하고정대광명하디드러감은이닐은말부합위리하시여물치지는공위라사름의  
 성품이다르고괴혈이현슈하시늘일부승목하시심지라과철정지욕을억저로조제  
 하시괴품이부족하자는어려셔분허부유의괴상이잇고괴품이유여하자는자라도록  
 외식니사하는재되야말씀을듣고거동을본즉정의관존침시하는근지나심곡을의론  
 하시며슈용흠을숨힌죽고루과문하시시무를모르시니일로보건대사름의성취흠이현  
 빅부동이라일규로의론치못할가하시이다인성이지용왕현데의말이유리하시나왕도  
 는아니오이에패되라후진쇼년의호츄할배아니니우형의말을늦지말라괴성이유유  
 슈명하는지라츠시때애창박게와량외의의론을듣고심중에깃거니당에드러가선순  
 인드러왕로위괴성형데의문답을드르니인성은안정하고괴성은쾌활하시성품이다  
 르니성취흠이호호리라하시더라일일은대애괴성드러왕네은지일망이라부증이괴적



흘지니명일은도라가라내또흔십여일후에입성코저하노라괴성이슈명하교익일발  
 흥홀시선숙인이오히려홀출창연하하더라차설빙랑이장인을동독하야역스를못  
 치니슈호문창괴괴화요최샤치롭고정치흥이황성청루중대일이라양성을기드려락  
 성연을하교저하더니차환이홀연밖그로드러와고왈천비아샤미랑청루를지나더니  
 장바람이천비를보고붓들며왈너의랑지청루를일신하다하니내흔번가구경하리라  
 하니만일오거든붓치지말으쇼셔빙랑이쇼왈네무슴숙함이잇느냐차환왈전에랑저  
 빈한하심애장안쇼년이찾느니업고장바람이길에서천비를본즉외면하교모르는데  
 하더니금일이곳치다정흔테하니엇지절동치아니리오빙랑이쇼왈염량지러는조고  
 로잇는바라내전일은빈곤흔고로짐짓교양하엇거니와금일에만일사름을업수히녀  
 이면또흔장안쇼년의정티와다름이업슬지라종금이후는내맛당히화평함을힘쓰리  
 라괴연수일후장풍이부지불각에돌입왕랑이장바람을알쇼나빙랑이쇼왈첩이병이  
 잇서빈길을샤절흔고로상공을이제야되오니불민하야다풍이일즉빙랑을면뵈츠  
 로수초보앗스나데일은의복이람루하교돌재는슈작이업슴애불안이알앗더니금일  
 봄개첫재거체회황하교돌재의식이찬란하며셋재말슴이온유하야공슈흔중슈습하  
 고아담흔중아릿다운지라심중에대경하야싱각하되빙랑의조식은미랑에지리아닐  
 지니만일양성이도라오거든내중미하리라이에빙랑드려왈랑은청루세개오디덕명  
 기라저조를말하나가무조식을말하나황성너의교방벽여쳐청루를떨어도빙랑당홀

潘牧之、  
 杜石崇

재업슬지라그러나쇼년을턱하야친할지니미랑의과상셔친하듯말지어다빙빙이나  
 히어린너조로장풍의거동을보고춤아우읍되짐짓구경코저하야웃고담왈엇드하이  
 를친하야야길하오리잇가풍이눈을삼적이며손바닥을뒤집으며왈지금장안쇼년에  
 는출중흔재업스나내심중에일인을먹음어두엇스니반악의풍취와두목지의문장에  
 로또석송의부를겸하엿스니풍류호걸이오영웅군제라연방섭스제니그러흔남조는  
 다시업슬가하노라빙빙이싱각하되이반드시양성을닐음이로다하교짐짓문왈이  
 엿드하사름이쇼장풍이그유의흥을보고물너안져손을져어왈아즉루설치말라사름  
 인즉지금연왕상공의데스지라청루에비밀이든이느냐엇어친하기극관할가하노라  
 빙랑이우으며왈선성은슈단을내여쇼개하쇼셔풍이반향을안졌다가다시오마하교  
 가나라차설괴성이환가흔지수일에몬져미랑을차자가니되마량인이또흔저좌흔지  
 라미랑이쇼왈근일장안에일기거갑홀취취성김을상공이드르시니잇가성이짐짓모  
 르는데하야왈내성중을떠는지일삭이라업든취취성김을엇지알니오되마량인이듯  
 고우어왈빙빙이구일청루를중슈하야소문이와자하나우리아즉가보지못하니이다  
 미랑이미미히우으며되마량인드려왈상공이가보고저하실진대좌상에빙랑과친흔  
 사름이잇는가하노라성이초언을듯고미랑의혜혈함으로입의짐작함이잇슴을알고  
 쇼왈빙랑은국식이아아름다운뜻에봉답이만흔지라내또흔면분이잇노라되성이박  
 장대쇼왈내일즉빙랑의청루중슈함을듯고양형을의심하엿더니미랑은엇지드러는



노미랑이쇼왈이느첩이중미흠이라탕춘디시령이업던들엇지빙랑의지조를알앗스  
 리오다만의달은바는상공이설중미를알기룩룩기녀로알으샤구구식괴지심을들가  
 하야빙랑친흠을발설치아니시니엇지괴라하리잇가넛말에성성이성성을앗긴다  
 하니동사창기로빙랑웃흔가무즈식을청루쇼년비안목이업서슈습지아님을미양차  
 셔하다가탕춘디에상공이글을한삼에써주심을보고상공의조감을더욱흠안탄복하  
 앳더니이다양성이쇼왈내엇지랑을속이리오짐짓흔번동락고져흠이러니랑이임의  
 몬져알앗스니비룩즈미업거니와청루의역시엇지되엿다하더노되실왈일전필역하  
 고제되공치하야청루중거갑하리라하더이다언미필에장풍이드러와양성과오래못  
 봄을말하고쇼왈양형이향일빙빙의집을못더니과연가보니엇다하더니잇가성이짐  
 짓답왈그날가보고져하엿더니장풍선성이결인으로되쓰치가보지아니하엿더니  
 라풍이묵묵량구에왈인간빈취수리박취돌듯하야결인도혹부즈될지라우연흔말을  
 엿지준신하시는노성이맞춤취하야미랑의무릅을벼이고잠드느니라제인이혹히지  
 니미랑이금금을다리여성을그만히움거누이고미랑이역시취하야그넛히잠드러더  
 니성이몬져잠을쳐여봄에비단장을헐헐이드리오고향노의차설는소리삼경창외에  
 세위쇼쇼흔듯일미인이넛히누어취교옥잠은침변에떠러지고보되라삼은흥전에빛  
 꺾는디도화랑협에취흔이몽롱하야괴식이믹믹흔지라성이불승춘흔하야취몽중은  
 우를희롱하니미랑이잠과술이쳐야의상을거두고차를원하며한담할시성이쇼왈내

이제빙랑을임의친하엿스니진기랑이일호투심이업느냐미랑이쇼왈첩의투심유무  
 를알고져하시거든스스로상공의모음을싱각하야보쇼셔무편무당하면왕되탕이  
 라상공이설중미를더스랑하신죽빙빙이식괴할거시오빙빙을더스랑하신죽설중미  
 또흔식괴할거시니이느다상공씨달님이라첩드러못지말으쇼셔성이쇼왈내동서청  
 루에빙미랑이잇스니풍류장중의능식필의로다다만풍류지비를돕고져하야오천  
 금은임의빙랑을주엇스나눔은오천금은랑이스양치말라미랑왈근즈는주금이오불  
 제취라급흔거슬구하고부흔거슬붓되지아니하다하니빙랑이청루를중슈하고눔은  
 거시업슬가하오니오천금을마저주쇼셔성왈임의말하엿스니고스흠은불가하도다  
 미랑왈상공말씀이이에밋치시니일천금만정표하시고스천금은미랑을마저주쇼셔  
 첩이비룩잔란하나가무지비는부족흠이업고또청루기녀의풍괴전혀천흔쇼년의낮  
 을내여야제일흠이빛나느니상공이빙랑을장발하심은첩의영형이라엇지일호불평  
 지심을두리잇가성이허락하고심중에탄왈비룩창기나천명하느재다르도다미랑이  
 다시쇼왈금일장풍의눈치를봄에상공을빙랑의게쇼개코져하니상공은흔번동락하  
 야그거동을구경하쇼셔성이웃고허락하나라의일양성이일천금으로설중미에게보  
 내고스천금으로빙빙을주어락성하라고빙빙의집에너르니죽빙화동과요한죽란  
 이십분화려흔중당중하야일좌쇼루를더지엇스니금장쥬렴을면면이것엇스며빅옥  
 여의와산호갈구리쳐쳐에걸넛거늘성이빙랑과의란하야탄왈루디의성희흠이이러



항게덩흙이엿거든항를며사름이리오석일변화는내비록못앗스나씨여진기외부  
 러진기동이눈썹짜일스이에이러듯일신하니만일인성이이청루곳치홍안이빅발되  
 고빅발이다시홍안이되야삼싱가연이던전무궁한면엇지즐겁지아니리오빙랑이랑  
 연쇼왈첩은씨항되던디만물의성쇠의락이엿다하니성자는쇠지본이오이자는락  
 지본이라홍안이부족회오빅발이부족비여늘인정이괴이항야그가온디정을벗치며  
 연분을미저서로성쇠의락을저버리지못하니엇지가련치아니리오성이그물리의오  
 히흙을칭찬하거늘빙랑이깁고왈상공이출입을리양야심후하시니락성연을어는날  
 에항리잇가성왈후오일은황상이원릉에형형지일이라내을가항노라빙랑이대회하  
 야그날로덩항더라의일성이는진후미랑을차자가니미랑이못가란간의지항야원  
 앙노는거슬즘착히보더니성이만히걸어랑의뒤에니르러죽용어왈미랑의풍정이  
 불쇼항도다미랑이대경항야도라보고서손을잡고인항야란두에안져왈후오일빙  
 랑이락성하려청루제기를다청항다하니랑이드렸나미랑왈밋쳐듯지못하니이다  
 말할츠장풍이드러오거늘성왈방랑을흔번보고저항더니엇지드름에후오일락성  
 을흔다하니선성은동거항라풍이미랑의괴적을보고회회쇼왈빙랑이비단루각  
 이일신홀썬아니라그용되또흔일신항야전보다런상선인이라흔번볼가항니이다미  
 랑이듯고거짓불열흔괴적이잇서초연무어항니풍이다시쇼왈빙랑이그러항되지금  
 청루중공론이미랑을일등치고빙랑을들재치니양형은후오일언약을닛지말라성

이응락하니풍이몸을니러어되로가거늘미랑이대쇼왈장바람이반드시빙랑에게상  
 공오사는쇼식을선홍항라감이라빙랑이것흔비록졸흔듯나속은다저항니필경장  
 바람을롱락항는슈단이잇슬가항니이다항더라츠시빙랑이락성연을경영항노라분  
 분항더니장풍이드러오며회석이만면항고양양즈득항거늘빙랑이암쇼왈이바람이  
 또무슬곡절이잇도다항고죄덩후장풍이쇼왈랑이락성연을추린다하니응당분요항  
 리로다빙랑왈그러항니이다풍이다거안즈며만히왈향일천거항든양성을랑이넋  
 지아니항였나빙랑이붓그리는데항고왈엇지나즈리오풍이쇼왈내임의중미항야  
 락성일오마항앗스니그천항는슈단은랑에게달녇스니알아항라빙랑이엇지흔고하  
 회를보라

데류십이회

양성이련항야삼장파거를맛치고  
 던지천히북홍노를치다

楊生連中三塲試  
 天子親征北匈奴

각설장풍이빙랑드려양성을중미항야락성일오마항든말을항며왈천항기는랑에게  
 달녇다하니빙랑이불연변석왈양성이첩을창기로천디흙이로다만일정이잇슬진대  
 몬져중용심방할지니엇지쇼년을조차초면너즈로쇼좌중에천항리오풍이쇼왈그러  
 흙이아니라양성은중시빅면서성이라졸흔미움이흔자음을벗그림인가항노라빙랑



이쇼왈슈졸은녀즈의본석이라남져여츠하야무엇에쓰리오선성은다시가금야에종  
 용이다리고오쇼셔맛당히비주를준비하야가드일지니만일즐거오지아니하거든그  
 만두쇼셔풍이락락하고가더라츠시양성이미랑과쌍륙을쳐술내기홀시미랑이런하  
 야두판을지고일변술을사오며일변사으를다시집어판을버리더니장풍이황황이드  
 러오거늘미랑이괴석을고치고짐짓소리를놓혀사으를굴니며왈선성은아모말도말  
 으쇼셔내오날밤을새와도이설치는하코말니라풍이빙랑의말을전코져왔다가모  
 이심이조급하되말은못하코넬히안졌다니또미랑이지는지라풍이잔신이름을득성  
 드려왈풍이지금빙랑을보고오니빙랑이하는말이있더이다미랑이사으를썰니더져  
 왈빙랑인지어름랑인지초한이징봉하야승부를결하깃스니젓거리지말으쇼셔풍이  
 ㅁ장황망하야싱각하되빙랑이가드리마하얏는데엇지하면도호리오하더니석양이  
 되여가되미랑이사으를놓쳐아니케를풍이홀일업서니라고져하거늘성이웃고쌍  
 륫판을밀치며왈빙랑의말이무엇이다노풍이ㅁ만히고왈여츠여츠하며금야에기드  
 리마하더이다성이쇼왈내부중에드러가혼정을뭇고갈지니빙랑의집을ㅁ르치라풍  
 이손으로방바닥을그려왈이리로간즉서교방대되오더리로간즉학상선청취오그다  
 음새로고친집이니이다성이덤두하코하여진후성이환가하얏다가야심후다시미랑  
 을차져ㅁ치빙랑의집에가장풍의거등을보자하니미랑이응락하코하가지빙랑에게  
 니름에빙랑이쇼왈장바람이황혼북허와상공을고되하다가혹시집을뭇치지신가하

야상공부중으로가더이다미랑이쇼왈바람이불구에또올지니첩의속이느거슬보쇼  
 셔하코성의귀에다하고ㅁ만히말하니성이웃더라아이오장풍이드러오며문을열나  
 하니미랑이즉시축불을돌녀노코마조나아가며손을치거늘풍이당황왈랑이엇지여  
 기니르노미랑이웃고풍의소매를잇그리고요흔곳에가ㅁ만히말하되우리장안청루  
 의일동일정을엇지장선성을속이리오빙랑의청루중슈홀을의심하엿더니일기강남  
 부호를천하야오천금을엇음이라츠초소문이난즉일이죽용치못할가하야빙랑이아  
 짜첩을보고이실고지하며그부회또첩의허명을뭇고흔번몸을말하다하기로첩이근  
 일과상셔를브린후가무지비에부족함이만흔고로흔번보면오천금을엇을지니선성  
 은부티이말을양성의귀에가게말라풍이혀차며단왈랑이오히려나를모르도다내엇  
 지이러흔말을양성에게루설하리오다만금야에양성이이리오마하엿스니엇지하리  
 오미랑이쇼왈선성은슈단이너모업도다만일양성이오면엇지다른침실이업스리오  
 풍이칭션하코왈슈연이나인심이불측이라부회라츠칭하코미인을속이느재잇스니  
 랑은허신치말라내맛당히문져슈작하야취막흔후알게하리라설파에바로방중에드  
 러가고져하거늘미랑이놀나는레하며풍의소매를잡아왈선성은다된일에부졸업서  
 화던충화를말지어다풍이쇼왈장풍이십년청루에눈쳐로흔은사름이라슈단만보라  
 하코방중에돌입하니일기남져축불을돌녀노코향벽하야누엇거늘풍이기침을연하  
 야크개하며갓가이드러가니그쇼년이흔신기좌왈빙미랑은어디갓스며장풍선성



은엇지아니오논고하거늘장풍이슈각이황망하야엇지할줄을모르다가비로소속은  
 줄알고우으며좌에안즈니일좌박창대쇼고빙왕왕선성이일기미남즈를중미하  
 하시더니엇지아니하노뇨미랑왕선성이강남부호를취미하드러오시더니엇지하  
 노풍이쇼왕미남즈는즉강남부회오강남부호는즉미남치라장쥬호덤이오호덤이장  
 쥬니더그안즈시니가즉미남치라도하고강남부회라도홀지니장풍이평성거즌말은  
 아니하노라성이이에술을가져오라하야장풍을권하며빙왕이청루중슈호일을말하  
 니풍이칭찬왕후오일락성연에쇼년과대일기너를풍이맛당히가가호호이든이며다  
 청홀지니그리알나하더라초시던지탁일하야원릉에동가하심애연왕부지시위하야  
 발행하니이곳빙왕의락성지일이라괴성이래때고왕릉구경을하고오리이다하  
 고바로미랑의집에너르니장풍과마등뢰문성이다모히여부연함을의론하거늘성이  
 삼인을몬져빙왕의집에보내여연석을주장하게하니삼인이응락하보고보니장안쇼  
 년과청루제기임의절반이나모혔는뒤오륙십간청루에다시부계를먹여널니고금장  
 화병은운무를들녋스며슈인괴석은화초를그득듯코심이상림의육구는덩동하며철  
 보금로의향연이몽롱하고산호상상의월연이정치하며뒤모연두의금성이청아호중  
 상덤금인을남동너서로착란치아니하고제쇼년의계관돈패와제기의웅장성식이회  
 황찬란하여처음오는재만화축중에드러선듯안목이현황흔지라아이오양성이미랑  
 과오니전례인스를과호후금준미주는비반이랑자하고란가봉취노스죽이료양함에

장풍이니러나소매를떨치고궁둥이를들너준준이춤추며왕빅전로장의늬은거시창  
 법이라내장단을보라하니일좌대쇼하고제쇼년이청왕우리일즉빙왕의춤을보지못  
 하엿스니금일은제조를앗기지말라성이웃고빙미랑드러뒤무하라하야양쥬철뒤  
 관요를알외니여쇼년과제기중중립립히위립하야풍류를지축하고초장을알외에  
 완만호소매와한아흔티되복소리를응하야운자쌍학이느래를버리는듯슈중쌍방이  
 구슬을도하듯제삼장에니름애취슈는선선하야연화보로드러가고홍군이편편하  
 야릉과보로물너서니삼춘호덤이화향을어루는듯구포봉황이죽실을씩으란듯환패  
 는료랑하고관현은축급하야데오장에니름애양류호흔가는허리풍전에휘드러고섬  
 총호흔고은손길을공중에번득이여평원방초의느는제비깃을련하야남남하고륙슈  
 부용의노는원앙이목을사피여관관하니진퇴쥬선에동규합도하야취란상봉이난형  
 난데라흔마대복소리에동서분립하며믹믹츄파에웃는빛을먹음으니좌우방관이정  
 신이살아지며모음이무르녹아비로소빙왕의가무안석을칭찬불이하며교방청루에  
 성명이자자하니저상귀인들이도다마다원일권지하더라비반을물너후빙왕이나와모  
 든쇼년과양성에게고왕첩이제전하든청루를금일중슈하니이는다제상공의쥬신바  
 라바라건대다시수항상양문을빌니샤금일성스를후계에민멸케말으쇼셔장풍이내  
 다라큰소리하야왕금일지회는양형이쥬인이라하물며양형호흔문장을좌상에안치  
 고귀감히일즈를찬양하리오내맛당히고력스의달화하든슈고를스양치아니하리니